

[목회자 모임-히브리서]

8. 안식

2018. 8. 10. 이현래 목사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히4:9,10).”

오늘은 <안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3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고 말했다. 4장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히4:14).”고 말했다.

안식과 예수님의 관계이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사도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위임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당연히 그는 무엇을 선포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와 무엇을 의논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어떤 일을 세상에 가지고 와서 선포하려고 온 사람이다.

옛날에 처음에는 천사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창세기6장에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천사들이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니까 천사들이다. 뒤에 가면 선지자들이 나온다. 선지자들도 역시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으로 왔다가 보다는 간접적으로 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항상 말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라고 말한다.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독생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서양에서는 인간 중에서 특출 난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동양에서도 황제를 천자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한다.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해서 천자 혹은 천황이라고 한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사용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 예수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도라고 한다. 천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와서 사도가 된 셈이다. 우리와 가깝게

사도가 된 셈이다.

대제사장은 땅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다. 법적으로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 구약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선지자는 선지자이고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갈라져 있다.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와 제사장이 갈라져 있었다. 왜냐하면 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이다. 법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어떤 것도 법적이고 이론적인 것에서는 모든 것이 분리되고 갈라진다.

생명 안에서는 이것이 연합된다.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사과 안에는 여러 가지 맛이 함께 들어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리하면 신맛, 단맛,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다. 그것을 뽑아서 다시 사과를 만들 수는 없다. 이론은 그런 것이다. 이론이나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벌써 이론화되고 논리화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신맛, 단맛, 텁텁한 맛 등의 여러 맛으로 갈라놓으면 이미 사과가 아니다. 이미 사과는 없고 사과는 이리이러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인가? 이것이 법적으로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된다.

희랍세계의 합리주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것이 도저히 합쳐지지 않으니까 이 말이 아주 난해한 말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생긴 것이다.

영지주의 속에서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고 되었다. 또 에비온 학파에서는 ‘신은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된 것이다. 둘이 합해서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희랍세계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분리되었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는 이 말이 이것을 통합하느라고 나온 말이다.

생명 안에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한 사람이다. 이것을 분해해 놓으면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갈라져 버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사실 없다. 그냥 그렇게 믿는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믿는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해명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명은 이론적으로는 정의가 안 된다.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이고, 어떤 면으로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안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1서 5장20절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5:20).”**고 했다. 결국 영지주의를 방어하려고 요한복음과 요한1,2,3서가 쓰여졌다. 희랍세계를 향해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이다.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사도시며 선지자, 사도시며 제사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왕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고, 제사장은 땅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는 만인제사설(만인제사장론)로 이용하고 있다. 만인제사설이지만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갈라버린 사람들은 브레드린이다. 왜냐하면 영국 사제들이나 카톨릭 사제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무나 될 수 있다는 말은 그 제도를 부인하는 말이다. 사제를 부인하는 말이다.

천주교는 지금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은 신부가 하지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시골에 있는 천주교에 가면 신부가 없는 회당이 있다. 거기는 회장은 있어도 미사는 드리지 못한다. 미사는 꼭 신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부가 와야 집전할 수 있다. 그것을 완전히 타파한 것이 브레드린이다. 거기서 모든 직제를 타파하게 되었다. 제사장이 따로 없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 제사장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는가? 우리는 대제세장이신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만인제사설, 개신교의 제사장 사상을 그렇게 해석했다.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개신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도에 해당된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 형상과 모양,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

로는 합해지기가 불가능하다. 어떤 이론으로 해봐도 안 된다. 예수께서는 사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같아야 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이려면 하나님 같아야 된다.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죽음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둘을 이론적으로 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대신하여, 이것을 사람이 혼자 할 수가 없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다는 뜻이지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될 수가 없다.

요한1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깨달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5:20,21).”고 되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깨달음을 주어서 참된 자를 알게 했다는 말이다. 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시기도 하고,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이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면 결국은 다른 것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우상들은 하나님 비슷한 것들이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된다. 생명 안에서 통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은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된다. 물질세계를 보더라도 어떤 안정권이라는 것이 있다. 화학적인 변화를 볼 때 안정이 있다. 뜨거운 것과 찬 것이 만나면 바람이 일어난다. 둘이 완전히 섞어지면 조용해진다. 태풍이 그런 것이다. 적도의 뜨거운 열이 올라오면서 찬 공기를 만나면 그것이 태풍이 된다. 추운 지방으로 올라가 버리면 태풍이 없어진다. 모든 만물은 안식, 안정을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이다.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안식하셨다고 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홀로 계셨으니까 땅에 왔는데 물이 덮여

있어서 땅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안식이 안 된 것이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1:2).”는 이 말은 앉지 못하니까 수면에 너풀거리더라, 배회하더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는 말이다.

이제 수면에 너풀거리던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는 말이다. 자기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배필로서 사람을 만든 것이 자기 일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

“빛이 있으라(창1:3).”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지었는데도 안식이 없었다. 왜냐하면 일이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하여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일을 마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 자신과 연합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고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사람을 찾는 일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연합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홀아비가 되어서 혼자 살면 같이 살 여자를 찾을 것이다. 홀아비가 혼자 살면 안식이 없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다. 처녀나 과부는 부자가 많은데, 총각이나 홀아비는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한다. 안식(안정)이 안 되니까 돈을 모으지를 못한다고 한다. 결혼을 하여 배필을 맞고 나면 돈이 모아진다고 한다. 집안에서도 돈을 모으는 사람은 여자이다. 여자가 돈을 모으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지 여자가 돈을 모으지 않으면 돈이 남아있지 못한다.

아담의 안식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도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안식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생활할 수 있고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했다고 한다.

아담의 안식을 생각해보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처음에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는 것이다. 하나님도 경험해 보았으니까 잘 아실 것이다. 하나님도 혼자 있어보았으니까 외로웠을 것이다. 안식이 없었던 말이다.

“사람(아담)이 혼자 사는(독처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와를 지으신 것이 아니다. 하

나님이 지으신 여러 생물들을 다 이끌어 오시면서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셨다. 이 말은 배필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말이다.

“**흠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 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창2:19).**”고 한다. 개라고 하면 개가 되고, 소라고 하면 소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름을 다 지었는데 갑자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그러나 배필이 없으므로**’를 넣어서 생각 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갑자기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해놓고, 이름을 다 지었는데 갑자기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뺐다고 한다.

처음에는 하와를 짓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름을 다 지었지만 자기와 같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다. 나의 배필이 될 사람은 내 생명과 같아야 되는데 내 생명과 같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요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개와 같이 산다.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격상시켜서 반려견이라고 한다. 아주 같이 산다. 아기 키우는 것과 똑같다. 안고 뽀뽀하고 별 짓을 다한다. 같이 잠도 잔다. 사람과 비슷하다.

아담은 그때 반려견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배필이 안 된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이다. 그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고 말했다. 같은 생명이라는 뜻이다. 한 생명으로밖에는 연합이 안 된다는 말이다. 한 생명으로밖에는 배필이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이 소와 결혼하여 살겠는가? 개와 결혼하여 살겠는가? 사람은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이다. 아담의 안식은 하와를 얻는 데서 안식이 왔다. 맨 끝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2:25).**”고 했다. 이것은 안식했다는 뜻이다. 아무 불안이 없다는 뜻이다. 부끄럽다는 말은 불안이 있다는 말인데, 안식이 되니까 불안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안식하시고, 아담은 하와를 만나서 안식하게 되었다. 배필을 만난 것이다. 그런데 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이 이탈됨으로써 안식을 잃어버렸다. 어쩌면 하나님도 안식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안식의 대상인 아담이 어디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한다면 꼭 아내가 달아나버린 홀아비처럼 되어버렸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호세아서이다. 아내가 달아나버렸다. 바람이 나서 나가 버렸

다.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아다닌다. 이것은 사람을 잃어버린 하나님 마음을 대신한 것이다.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창3:9).”고 물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3:10).”라고 했다.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다.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은 나 혼자이니까 두렵게 된다. 배필이 없으니까 두려워진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방황했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인간의 불안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위치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사장이 없어졌다면 불안하다. 한 사람의 사장이 있어서 만 명의 종업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 명의 종업원이 합해서 사장이 될 수는 없다. 사장이 없는 회사는 불안하다.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깊은 곳에 불안이 있다고 한다. 심층심리학적으로 보면 모두 불안이 있다고 한다.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이런 증상도 있고 저런 증상도 있지만 실제 내용은 불안이다. 어떤 정신병도 똑같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다. 사람의 배필은 하나님인데 머리는 하나님인데, 머리가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냥 진정만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와야 비로소 치료가 될 것이다. 옛날 말로는 귀신이 들렸다고 한다. 나도 옛날에는 귀신 들린 줄 알았다.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사례를 보았는데, 귀신 들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 뒤쪽에 어떤 아파트가 있었다. 그때는 라디오밖에 없을 때인데, 어떤 처녀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노래를 불렀다. 왜 처녀가 노래를 부르는가 했더니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묻지도 않는 말을 하셨다. 내가 미신을 섬겼더니 딸이 저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우리 교회를 사찰하는 분이 그 처녀가 돌았다는 것이다. 왜 돌았느냐고 물었더니 음악 콘테스트에 나갔다가 떨어져서 저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번은 이대 1학년 학생인데 정신 이상이 되었다고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이 데리고 왔다. 여전도사님이 그 학생 집을 가자고 하여 그 집을 갔다. 그런 사람들 집을 보면 컴컴하고 분위기가 자체가 그렇다. 그때 서울 집 방은 안방에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에 온갖 것을 다해놓았는데 딸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귀신을 섬기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다.

또 한 경우는 서울에 있는 자매가 대학교 다닐 때 써클이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청년이 귀신이 들렸다고 데리고 왔다. 멀쩡한 청년이 맨날 손을 보고 있는데, 그 손으로 자기에게 뭔가 지시가 온다고 한다. 그 집 어머니가 계신 곳을 가보았는데 그 집도 침침하였다. 무당을 하시는 분이였다. 같이 갔던 자매님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이런데 아들을 고치려면 어머니가 이런 것을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더니 버리지 못한다고 하셨다.

정신병이라는 것이 귀신들린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보았다.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이 귀신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같다. 잘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하여튼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불안이 들어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심층 속에 불안이 들어있다고 한다.

회복의 경륜

여기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 회복의 역사가 성경 안에 있는 역사이다. 안식을 잃어버린 것이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안식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 같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들과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한다. 그리고 이사를 낳게 하여 은혜를 입게 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한다. 또 야곱은 연단을 받아서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하게 한다. 이것이 회복의 과정이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가지고 온다. 성막과 율법을 가지고 왔다. 성막은 왜 필요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건축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성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다. 이것이 의식이고 형식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예표는 되었지만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다. 늘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되풀이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용서를 했다. 그러나 나가면 다시 또 그렇게 한다. 노름한 사람을 법원에서 용서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나가면 또 한다.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모양이다.

내가 어릴 때 우리 바로 뒷집이 아주 부자였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노름으로 완전하게 다 팔아먹었다. 자기가 사는 집까지 팔아먹었다. 고치지를 못한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그 당시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 온 사람인데 노름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법원에서 아무리 용서를 해도 똑같다. 법적으로 용서를 해보았자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으로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용서를 해도 다시 또 그렇게 한다. 다시 또 되풀이 하니까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해마다 다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해마다 다시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한 번 지키면 영원히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지키지만 다음에는 지키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라고 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3:11,12).”**라고 한다.

사람이 어찌 그런 사람만 있겠는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다.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늘 죄를 다시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안식이 오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영원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게 된다. 바로 걸어가면 열사흘 길이면 간다고 하는데, 40년을 방황했다. 40년을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과 발을 맞추게 하는 것이다. 구름 기둥이 뜨면 뜨고 앉으면 앉고, 불 기둥에 뜨면 뜨고 걸어가고 또 앉으면 앉는다. 이것이 3일이 한 번씩 뜨고 3일에 한 번씩 가라앉는다고 하면 쉽다. 한번 앉으면 며칠간을 앉을지도 모르고, 또 한 번 뜨면 며칠간을 뜰지도 모른다.

군대에서 교관이 앞으로 가 뒤로 가를 5번 하라고 하면 쉽다. 그런데 5번을 할지 6번을 할지 모른다. 처음에는 이것을 5번을 하라거나 10번을 하라고 하지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고 생각한다. 교관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전쟁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므로 제식훈련을 한다.

아무것도 아닌 훈련을 계속 한다. 한참 땀땀이를 돌리다보면 사람이 멍해져서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제식훈련이라는 것이 맨날 똑같은 것을 계속한다. 처음에는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므로 군대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제식훈련을 시킨다.

제식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정신을 빼버리려고 그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앉아 일어나를 계속한다. 기합주면서 앉아 일어나를 손가락으로 시킨다고 한다. 사병들은 손가락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한다.

보통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유린도 유분수이지 그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앉아 일어나를 손가락으로 시키고 있겠는가?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인권이 소용이 없다. 군인이 되려면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을 가지면 군대가 될 수 없다.

전쟁 상황과 평상시 상황이 너무 다르다. 그런데 전쟁 상황을 가지고 평상시 상황에 와서 잘하니 못하니 인권 유린을 하느냐는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이다. 죽느냐 사느냐는 판과 잘사냐 못사느냐는 판은 판이 완전히 다른 판이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는 곳이고, 세상은 잘사냐 못사느냐는 판이다.

지금 세상도 옛날에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먹을 만한 판이 되니까 인권유린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배고플 때 인권이 어디 있는가? 강냉이 죽도 얻어먹지 못하는데 인권이 어디 있는가? 굶어 죽는데 인권이 있는가?

그때는 미국에서 나오는 잉여물자인 잉여농산물, 강냉이 가루, 또 탈지분유 등을 얻어먹고 살았다. 지금 생각하면 거지이다. 거지도 알거지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알거지 노릇을 했다고 대통령 욕을 하면 되겠는가? 그때는 그것도 없어서 못사는 판이었다.

판이 다르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판이 다르다. 그들은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창1:31).”**고 한다. 사람은 무엇이 불만이 되었는지 불만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한 것대로 내가 좋았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행복하다. 다리가 하나 없더라도 내가 만족하면 행복하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주었더라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이 아니다. 불행이다. 하나님은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아담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나는 천사만 못할까, 이렇게 하니까 불행이 왔다. 그러므로 안식이 안 된다.

하나님 안식을 깨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놓았느냐, 인간은 왜 이러냐, 왜 100년도 살지 못하느냐고 하면 잠을 주무시겠는가? 안식을 깨버리는 것이다.

나는 아주 행복하다, 사람을 보니까 만족하다고 하시고 잠이 막 들려고 하면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한다. 또 잠을 자려고 하면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맨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무시겠는가? 안식을 못한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면 하나님이 안식이 안 된다. 나도 나대로 불만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안식이 안 된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처럼 엄한 계명이 없다.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다. 그날 일하지 않고 쉬라고 했는데, 왜 쉬지 않고 일하면 죽이라고 했는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나님은 그 날이 자기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다. 그 안식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불만이 있으면 참여가 안 된다. 무슨 불만이 있든지 참여가 안 된다. 적어도 만족하면 그것은 행복이다.

대구교회 한 형제는 나면서부터 불구자이다. 우리 교회를 20살 정도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집밖에를 나온 적이 없다. 이웃사람들도 그 형제가 있는 줄을 몰랐다.

아버지는 대구 시장급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다.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잘 사는 집이다. 이 아들이 부끄러워서 한 번도 데리고 나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고모 되는 분이 우리 교회를 알아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어서 문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형제는 항상 감사하다고 한다. 그 집 식구들은 그 형제는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랬겠는가? 뭔가가 그 형제가 간 것이다. 은혜가 왔다. 이번에 교회 형제들이 데리고 일본까지 갔다 왔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다. 불만스러우면 불행이고, 만족하면 감사이고, 감사하면 행복하다.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많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히4:10).”고 했다. 안식에 들어가면 내 일이 없어진다. 만족하면 내 일이 없어진다. 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 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해도 내 일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긴다.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가? 왜 교계에 문제가 생기는가?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분열이 왜 생기는가? 자기 일을 하다가 분열이 생긴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분열이 생기겠는가? 분열이 생기는 데를 가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분열한다. 싸우는 데를 가보아도 다 하나님 이름으로 싸운다.

내가 4년 동안 싸워보았다. 양편이 모두 하나님 이름으로 싸운다.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고생하신다.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저 편을 들 수도 없다. 사람이 잘하려고 하는데 왜 싸울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분열이 될까? 이상하다. 안식이 없는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연합운동(에큐메니컬 운동, Ecumenical movement)이 17세기부터 시작했고 이런 저런 역사가 있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뚜렷한 것은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연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로비에서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 대회가 열렸다. 전 세계 기독교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교회일치를 선언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두 쪽 나고 말았다. 그때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갈라져서 지금도 합해지지 않는다. 차라리 그 연합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갈라지지 않았을 것인데, 연합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갈라져 버렸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이 많다.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 들어가지 못했다. 제식훈련이 안 된 것이다. 사람이 훈련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율법이나 훈련으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광야 40년이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기서 이것이 처음에 말씀 드린 대로 사도시며 제사장, 한 생명 안에 한 사람 안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생명의 연합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연합되지 않으면 온 집안이 시끄럽고 자녀들이 시끄럽다.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둘이 사이가 좋아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한

다. 둘 사이가 늘 싸우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고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둘 문제만이 아니라 온 가족 문제가 된다. 그것이 온 사회 문제가 된다. 두 사람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어 버린다.

예수 안에 와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하나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 간단한 말이 아니다. 사도시며 제사장이라는 말이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말이다.

구약의 종교는 선지자라는 기둥과 제사장이라는 두 기둥이 있다. 이 두 기둥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법적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아론의 후손에 대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법으로 세운 사람들이다. 선지자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같이 연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와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그렇게 안 되던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다. 갈라져 있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생명 안에서 밖에는 하나 될 수 없다. 교리를 통일하면 하나가 되는가? 정책을 통일하면 하나가 되는가? 정치를 잘하면 하나가 되는가? 절대로 하나 되지 않는다. 생명 안에서 하나가 안 된 것은 하나가 아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람이 혼자 사는(독처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창2:21),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3).”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지 않았으면 교회는 예수님의 배필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아진 교회만이 예수의 배필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

죽으심 없이 된 것은 배필이 될 수 없다. 아담의 갈빗대가 아니고 소 갈빗대로 사람을 만들어놓았으면 연합이 되겠는가? 안 된다. 소갈비가 훨씬 크고 강하겠지만 하나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적을지라도 아담의 갈빗대여야 한다.

우리의 연합은 결국 예수의 갈빗대로 되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사도라는 것과 같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과 같다. 사람의 아들로서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사람이다.

한 사람인데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는 내가 사도의 입장도 되고, 또 제사장의 입장도 된다. 그냥 말씀만 선포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내가 함께 가기도 한다.

사역자는 나 따로 교회 따로가 될 수 없다. 교회와 내가 하나이다. 교회 따로 나 따로는 사역이 아니다. 우리는 거기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는 것이다. 말씀도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되지 교회 밖에서 나올 수가 없다.

신약성경이 전부 교회 안에서 나왔다. 밖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철학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신학에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다. 신약성경 전부가 교회 안에서 나온 말이다. 교회가 없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교회가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교회에 준 편지이다.

교회가 없이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제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된다. 교회 안에서 된다.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교회를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대로 해석은 되겠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교회 안에 준 말인데, 내가 A라는 여자에게 준 연애편지를 가지고 B라는 여자와 사랑할 수 있는가? 우편배달부가 연애를 하겠는가? 연애편지 배달하는 우편배달부가 그 연애를 알겠는가? 불가능하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고후3:3).” 그것은 편지배달부라는 말이 아니다. 구약에서는 편지배달부 역할을 했지만 신약에 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고후 3:3),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12:15),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고전 12:27).”** 전부 그렇다.

간접적인 것에서 신약에 오면 직접적인 것이 되었다. 왜? 예수와 우리가 하나일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어디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 십자가 안에서 밖에는 예수님도 우리를 포함할 수가 없다. 또 우리도 그 안에서 밖에는 예수님 안에 포함 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는가? 예수님에게 어거지를 쓴다고 들어가지겠는가?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명 안에 들어오려면 내 생명과 같아야지 내 생명이 아닌 것을 받아준다고 들어오겠는가? 내가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개가 내 생명이 되겠는가?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연합을 하려면 십자가에서 밖에는

연합이 불가능하다. 어디서건 불가능하다.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십자가 외 다른 곳에서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는가? 기도하면 되는가? 사람들은 제일 쉬운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도 기도하면 만나질 것으로 생각했다. 기도하면 뭐가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기도가 부족한지 안 되었다. 방언이라고 하면 될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안 되었다.

이 만날 자의 유일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아무리 나에게 오려고 해도 안 된다. 어떻게 그와 내가 만나지겠는가?

그런데 십자가 안에 가면 모두 하나이다. 우리가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듯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 안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거기에 있다. 거기서 나를 발견하니까 안식이 된다. 내가 들어가서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발견되니까 안식이 된다.

내가 예수와 연합하려고 해서 연합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미 나를 포함해 놓았다.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사실도 있다. 약속한 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다 이루어놓았으니까 만들어놓았으니까 그대로 보고 살라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뚫어 놓았으니까 차를 타고 가라는 것이다. 고속도로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다.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실이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오로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해놓으신 그 사람만 남아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다.

사실이니까 밥을 지어놓았으면 먹으면 된다. 밥을 지은 것은 사실이다. 식당에서 누가 밥을 사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때까지 믿어야 된다. 누가 밥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밥을 먹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얻어먹지 못한다. 그런데 밥을 다 차려두었으면 그것은 사실이다. 먹으면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될 일이 있고, 믿음이 필요 없는 데가 있다. 제일 쉬운 데는 믿음이 필요 없는 데가 제일 쉽다. 믿음까지도 어려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안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살이 될 때까지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는 이삭은 이미 주어졌다. 훨씬 쉬웠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아주 쉬운 길이다.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믿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알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쉬운 일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사실만 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것은 모두 사실이다. 사실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내가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사실이기에 때문에 내가 보면 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안식이 있다. 그 안에서 연합이 생긴다. 그 안에서 예수와 나와 연합이 생긴다. 연합이 생기면 안식이 된다.

왜 안식이 없었던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이다.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탈되어 버렸기 때문에 안식이 올 리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분주하게 된다. 안식이 없는데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분주하게 만들어버린다.

안식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조용하다. 시끄럽지 않다.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 안식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안식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불안하고 괴롭고 원망이 생긴다.

내가 처음에 교회에 가서 나 대로는 뭘 해본다고 생각도 많이 하고 궁리도 많이 했다. 뭘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겼다. 나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알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내가 4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그것도 내가 화근을 만들었다는 것을 몰랐다.

안식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분주하다. 시끄럽고 복잡하다. 가는데 마다 시끄럽게 한다. 우리가 먼저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와의 연합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된다. 그 안식을 얻으면 보좌 앞으로 간다는 말이 그 말이다. 보좌 앞이 안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왜 안식일인데 일을 하느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12:8).**”고 하셨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이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한다.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면 얼마나 일이 잘 되겠는가! 하나님이 피곤치 않으니까 얼마나 일이 잘되겠는가!

참 너무 쉬운 길인데, 우리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이다. 이탈된 사람은 자꾸 하지 않을 일을 만들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다.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든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다. 그는 우리와 같아져야 했다. 이것이 전부 우리를 위한 말이다. 같아져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를 포함했다.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포함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찾아가겠는가? 예수를 모시려고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려고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우리에게 와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들어가고 말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일도 없다.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별도 없다.

일을 하는 곳에 가면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확실히 구별된다. 믿음으로 큰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작은 일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나 같은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작은 일밖에 못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굉장히 큰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거기서는 연합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서 큰일을 한 거기서는 연합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자리에서만 내가 연합이 된다. 그 연합 안에 내가 안식이 된다.

지난번에 김목사님이 안식 후에 뭘 하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안식하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다 된다. 염려 마시고 폭 깊이 안식하시기 바란다. 안식하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교회 형제들도 모두 안식에 들어가게 하면 교회가 조용해도 뭐가 다 된다. 뭘 할지는 모르지만 다 잘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잠이나 깊이 주무시면 된다.

감사합니다.